CONDERI

CONDERI DAILY INSIGHT | 일일 인사이트 리포트 | 대외 공개판

공포의 절정과 첫 반등: 규제 쇼크의 48시간 — 딥테크로 옮겨간 자본, 보안 AI 전쟁, 이중화된 노동시장

The 48 Hours of the Regulation Shock: Capital Moves to Deeptech, the Security-AI Race, and a Two-Track Labor Market

본 리포트의 독자 및 활용 가이드

이 리포트는 2026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 글로벌 시장의 급변을 창업가, 경영진, 엔지니어, 투자자, HR 담당자가 함께 읽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일일 산업 인사이트입니다. 모든 수치는 공개된 공식 출처(정부 통계, 학술 문헌, 시장조사기관, 주요 언론 보도)로 검증했으며, 추정치와 확정 실적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글보다 도표와 그래프가 먼저 말하고, 텍스트는 그 해설을 돕습니다.

문서 정보 / Document Information

문서등록번호 Document No.	CONDERI-IR-2026-11-07
발행일자 Published	2026. 11. 07. (토) Saturday
권호 Volume	VOL. 2026-11-07
분석기간 Coverage	2026. 11. 05 ~ 11. 07 (직전 3일 전수)
배포구분 Distribution	Public | 일반공개
발행기관 Publisher	CONDERI AI산업전략연구실
조사·집필 Research	AI산업전략연구실

종합 요약: 급락의 다음 날, 무엇이 확인됐는가

Executive Summary (KR) | 2026년 11월 5일~7일 글로벌 동향 압축 분석

코스피 단일일 급락 (11-06)

−6.02%

1단계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 연속 발동
장중 4,911.28까지 하락, 외국인 6일 연속 순매도 (연합뉴스)

미 반도체지수 충격과 안정화 (11-05~06)

SOX −12.25%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 후 VIX −9.4% (25.53)
나스닥 +1.09% 반등 — 1차 안정화 신호 (연합뉴스·CBS)

미 고용보고서 서프라이즈 (11-06)

+165,000

예치(59,000)의 2.8배, 실업률 4.1%로 하락
임금 +3.1% — 노동시장 '저해고·저채용' 국면 확인 (CNBC·BLS)

한눈 요약

이번 48시간의 문법은 **"급락과 반등, 그리고 구조의 이동"**이었다. 미 중간선거 블루웨이브 여파로 데이터센터 규제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돼 코스피가 −6.02%로 폭락하고(11-06, 서킷브레이커 발동),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로 팬데믹 초입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다음 날 나스닥이 +1.09%로 반등하며 VIX가 급락해 1차 안정화 신호가 나왔다. 자본은 이미 다음 목적지로 옮겨 가고 있었다 — 방산(Shield AI 20억 달러·최대 25억 달러 스케일 조달), 드론·우주(Zipline 15억 달러, CesiumAstro 7.3억 달러) 등 '물리 계층 딥테크'가 주간 딜 상위를 쓸었다. 기술 진영에서는 보안 특화 모델의 전쟁이 공식화됐다(OpenAI GPT-6 Cyber vs Google Gemini 4 Carbon), 사고있고 오픈웨이트 진영은 Thinking Machines Inkling 2 Small로 무게가 실렸다. 노동시장은 '이중 경제'가 뚜렷해졌다 — 고용은 생각보다 강했고(10월 +165,000) AI 수혜 기업의 청년 채용이 우세한 반면(Vanguard), 주니어 공고는 줄고 AI 역량 요구는 3배로 늘었다(Adzuna). 교육 현장은 '교사가 AI 문제해결자가 되는' 전환의 첫 주를 보냈다: 대전교육청×충남대 AI 포럼, 부산교육청 스쿨 AI 리빙랩(전국 최초), 전북 AI 리터러시 사제동행 교육.

본 리포트의 구성 (장절 체계)

I. **주간 브리핑 | 직전 3일 글로벌 5대 동향 (창업 — 기술 — 경제 — 경영/HR)** p.04 ~ 07
II. **심층 분석 | 국내 교육청·대학 AI 전환, 글로벌 교실의 정책 분기점, 진단·검증 레이어** p.08 ~ 10
III. **5개년 거시 지표 비교 | 금리·환율·시장 규모 2022~2026 팩트 테이블** p.11
IV. **핵심 시사점 (Key Takeaways) 및 참고자료** p.12

Executive Summary (EN)

English abstract of the 5 cross-sector signals, Nov 5-7, 2026

The 48 hours in one line: the regulation shock found its floor and capital found its next layer. KOSPI fell 6.02% in a single session (circuit breaker at 9:03 a.m., intraday low 4,911.28; Samsung −6.35%, SK Hynix −10.44%, USD/KRW 1,356.6), one day after the Philadelphia Semiconductor Index dropped 12.25% — its worst day since March 2020. Friday then brought a first stabilization: Nasdaq +1.09%, VIX down 9.4% to 25.53, and a US jobs report far above expectations (October payrolls +165,000 vs 59,000 expected; unemployment 4.1%). Venture capital moved to physical deeptech: Shield AI raised $2B equity plus $500M debt and agreed to acquire Echodyne at a $5.3B deal value; Zipline raised $1.5B at a $21.5B valuation; CesiumAstro closed $730M; Applied Compute took $350M at a $3.25B valuation with ARR above $100M. The frontier race turned to security-specialized models — OpenAI's GPT-6 Cyber (ExploitGym 48.5%) against Google's Gemini 4 Carbon — while Thinking Machines readied its open-weight Inkling 2 Small (594B MoE, 17B active). In education, Korea's provincial offices pivoted from AI tool adoption to teacher-as-problem-solver programs, and Google's decision to bundle AI Search with classroom Search access set up the next fight over who controls the classroom stack.

Three signals that matter (details in Section IV)

01

Volatility peaked; policy risk stayed

The single worst equity session since 2020 was followed by a rebound, yet 40+ data-center ballot measures and Democratic control of both chambers keep regulation as a standing market variable.

02

Security became a product category

GPT-6 Cyber and Gemini 4 Carbon mark the moment cybersecurity models stopped being demos and became priced, gated product lines — with open-weight challengers behind them.

03

A two-track labor market, one cure

Headline hiring surprised while junior postings shrink and AI-skill mentions triple; employers and classrooms alike are converging on demonstrated, verifiable cap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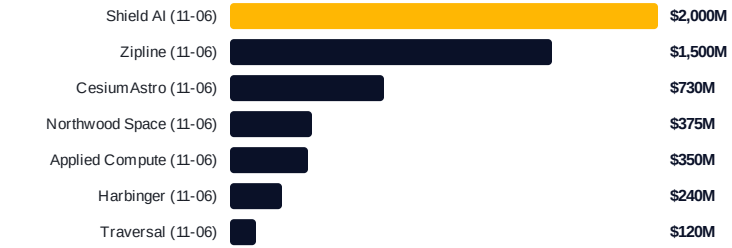
I. 주간 브리핑 | 창업 동향: 자본, 물리 계층으로 이동하다

Venture & Startup Trends | The week of Nov 5-6, 2026

I-1 창업 · 스타트업 STARTUP TRENDS

주요 신규 자금 조달 규모 (백만 달러)

2026. 11. 05 ~ 11. 06 발표분 | 자료: Crunchbase, TechCrunch, techstartups, finsmes



Shield AI는 20억 달러 지분(시리즈 H 10억+블랙스톤 구조화 지분 10억)에 5억 달러 사채를 합산해 총 25억 달러 규모이며, Echodyne 인수가 최대 53억 달러 규모로 공시됨 — 구조별 조건을 구분해 표기

발표일	기업	분야	핵심 수치·참여 투자자
11-06	**Shield AI**	방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지분 20억 달러(Disruptive·Innovation X 주도 시리즈 H 10억 + Blackstone 구조화 지분 10억) + 사채 5억 달러(JPMorgan 주도), 기업가치 288억 달러 | 레이더 업체 Echodyne 인수 최대 53억 달러 병행 발표
11-06	**Zipline**	드론 배송	15억 달러 후기단계 투자, 투자 후 기업가치 215억 달러(Paradigm·WCM·Layer Global 주도) | 미국 전국 드론 배송 네트워크·제조 시설 확장
11-06	**CesiumAstro**	우주·방산 통신	7.3억 달러 시리즈 D (Janus Henderson 주도), 기업가치 45억 달러 이상 | 수출입은행·JP모건 1억 달러 사채 별도 확보
11-06	**Applied Compute**	AI 컴퓨트 클라우드	3.5억 달러 (Elad Gil 주도, Nvidia 참여), 기업가치 32.5억 달러 | 설립 18개월 만에 연간 반복 매출(ARR) 1억 달러 돌파 공시
11-06	**기타**	우주·로봇·보험 AI	Northwood Space 3.75억 달러 시리즈 C(a16z 주도), Harbinger 2.4억 달러, Traversal 1.2억 달러(기업가치 10억 달러), Sentra 1.5억 달러, Ocient 1억 달러, Tutor Intelligence 7,500만 달러(a16z)

해석 AI 소프트웨어의 대형 딜 한복판에서 이번 주의 이동은 분명했다: 자본이 "물리 계층" — 방산 자율주행, 드론, 위성 통신, 전기 트럭 — 으로 옮겨 갔다. 크런치베이스 주간 상위 10개 딜 중 대부분이 방산·우주·드론이었고, AI 모델·인프라 딜은 수익성 증명(ARR 1억 달러 이상)을 전제로 소수에 집중됐다. 규제 쇼크의 다음 날에도 방어·인프라 자산에 대한 위험 선호는 꺾이지 않았다. (수치는 발표 기준이며 조건부 완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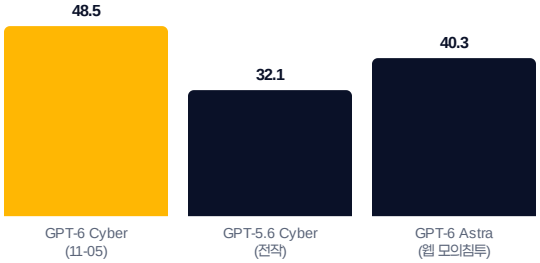
II. 주간 브리핑 | 기술 동향: 보안 특화 모델의 전쟁

Technology Trends | Security-specialized models and the open-weight counterattack

I-2 기술 · AI/반도체 TECHNOLOGY TRENDS

ExploitGym: 지정 취약점 악용 성공률 (%)

OpenAI 시스템 카드 (2026-11-05) | 웹 모의침투 평가는 GPT-6 Astra와 비교



범위 준수: 배포 프롬프트 없이 99.93% (전작 94.49%), 프롬프트 적용 시 100% — Preparedness Framework 사이버보안 등급 "Critical" (High에서 상향)

발표일	주제	핵심 수치·내용
11-06	**Google Gemini 4 Carbon**	보안 특화 멀티모달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 v5.0 1위(59) — Claude Opus 5.5를 제치고 종합 정상 등극	밸류 AI 지수 70.36%·텍스트 리더보드 1,528 Elo	일부 사이버보안 기업 우선 제공(Fairwind), 인트로 가격 입력 $2/출력 $10 (백만 토큰)
11-05	**OpenAI GPT-6 Cyber**	보안 특화 모델	ExploitGym 48.5% (전작 32.1%, 상대 개선 51%)	Linux 권한상승 익스플로잇 948건·Firefox 미공개 고심각 취약점 81건 발견, Mozilla 패치 반영	API 가격 입력 $20/출력 $100 — Daybreak Red 승인 고객 한정
11-06	**Thinking Machines Inkling 2 Small**	오픈웨이트	594B 파라미터 MoE(활성 17B), 이미지 입력·가변 추론 강도 지원	"서방 최강 오픈웨이트" 주장 — 차주 외부 안전성 평가 완료 후 Apache 2.0 전체 가중치 공개 예정
11-06	**Anthropic 내부 모델 3종**	자기개선 연구	Opus 5.5 대비 약 3개월 앞선 성능의 내부 모델 3종 공개, RSI(자기개선) 실험 시간 80% 단축 — 자동화된 연구 체계 경쟁 진입 (물구슈 보도)
11-06	**기타**	멀티모달·경량화	Gemini Omni 1.2 Flash 정식 GA($0.07/초, 720p)	Ant Ling-3.2-flash(560B, 1M 컨텍스트)	Baidu ERNIE 5.5 Flash Base 오픈	World Labs Frameboy 실시간 가상공간 데모

해석 프론티어의 새 축은 "보안 특화 모델"이다. OpenAI와 Google이 사이버보안 전용 모델을 각자의 게이트 프로그램(Daybreak, Fairwind)으로 출시하며 보안이 데모가 아닌 가격이 매겨진 제품군이 되었다. 동시에 오픈웨이트 진영(Inkling 2 Small, ERNIE 5.5)이 성능 수렴을 전면에 내걸었다. 기업 도입 관점의 평가 기준은 벤치마크 점수를 넘어 게이트·감사 체계의 성숙도로 옮겨 간다. (모델 우위 주장은 독립 검증 전 확정 문구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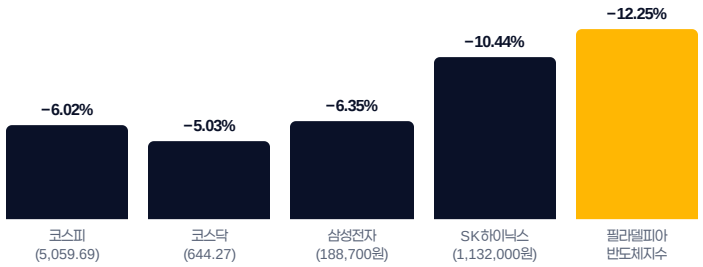
III. 주간 브리핑 | 경제 동향: 공포의 절정과 첫 반등

Economy & Macro Trends | Peak fear, first rebound: three prices in 48 hours

I-3 거시 경제 MACRO & ECONOMY

규제 쇼크 48시간: 단일일 하락률 (%)

11-05(미 증시)~11-06(국내 증시) | 자료: 연합뉴스·한국거래소·연합인포맥스 종가



코스피 장중 4,911.28(−8.78%)까지 하락, 09:03 1단계 서킷브레이커(20분 매매정지)와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 외국인 코스피 약 2조8천억 원 순매도(6거래일 연속)

기준일	지표	핵심 수치
11-06	원/달러 환율 (주간 마감)	1,356.6원 (+14.5원), 9월 28일 이후 최고 | 증시 투매·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원화에 전이 — 증시·환율 동반 하락
11-06	국고채 금리 (전만기 일제 하락)	10년물 연 3.853% (−3.4bp), 3년물 3.613% (−5.6bp) | 3년 국채선물 103.85 (+16틱) —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 스티프닝
11-06	미 증시 반등 (1차 안정화)	S&P500 7,376.86 (+0.31%)·나스닥 24,579.43 (+1.09%) 반등, VIX −9.4% (25.53) | SOXL +12.5% — 저가 매수 유입. 다만 주간 기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
11-06	미 고용보고서 (10월)	비농일 고용 +165,000 (예상 59,000의 2.8배), 실업률 4.1% | 8·9월 합산 +84,000 상향수정 — 노동시장 리실드가 반등의 배경
11-05	규제 변수의 실체	전국 데이터센터 제제 주민투표 안건 40여 건 통과(Redbud) | 골드만삭스: 주지사 모라토리엄은 단기·조건부 — 대통령 거부권·수혜 지역 세수가 제동 변수

해석 48시간 안에 시장은 세 가지 가격을 만들었다. 증시는 규제·수익성 리스크를, 채권은 성장 둔화와 금리 인하를, 환율은 외국인 자금 이탈을 반영했다. 그리고 다음 날의 반등은 "AI 거품 붕괴"가 아니라 "속도 조절 국면"이라는 해석이 우세했음을 보여준다(Yardeni: 빠르게 바람 빠지는 거품). 다음 변곡점은 11월 26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과 데이터센터 규제 입법의 실체화 여부다.

IV. 주간 브리핑 | 경영·HR 동향: 강한 고용, 좁아진 문

Management & HR Trends | Strong headline hiring, a narrower door for entrants

I-4 경영 · HR MANAGEMENT & HR

노동시장의 이중 경제: 지표 비교

Adzuna·Indeed(영국, 11-05)·Vanguard(미국, 11-05) | 단위 혼합 주의 — 배수·비율 혼합 표기



Vanguard: AI 노출 직종 22~26세 대학 졸업생 고용은 사전유행 수준 근접, AI 수혜 기업이 비수혜 기업보다 청년을 더 많이 채용 — "AI 대체론"은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음

발표일	주제	핵심 수치
11-06	**미 고용보고서 (10월)** | BLS	고용 +165,000(전문·사업서비스 +70,000, 의료 +42,000, 제조 +19,000), 실업률 4.1% | 임금 +3.1%(월 0.4%) | 단, 장기실업 평균 27.1주(2021-09 이후 최고)·27주 초과 실업자 196만 명 — "강한 고용, 약한 신규 진입"
11-05	**Adzuna·Indeed** | 영국 청년 노동시장	신입 공고 AI 언급 직년 초 대비 약 3배, 주니어 공고는 25% 감소 | AI 수혜 기업은 주니어에게 "마지막 20%" — AI 산출 검토·관리 역할을 부여. 고용주 역량 요구가 사무직 전반으로 확산
11-03	**Goldman Sachs·Mei** | AI 대체 해고의 비용	AI 관련 해고 추정 노동자는 재취업까지 약 1개월 더 소요, 1년 후 실업 지속 확률 +10%p | 2025년 재취직자의 약 3/4가 유사 이상의 AI 노출 직종으로 이동 (2023년 절반대에서 상승)
11-06	**The Guardian·Pew·Economist** | 인식과 실제의 격차	AI는 미국에서 약 100만 일자리 창출 vs 20만 건 감원 추산 — 그러나 미국인 71%는 향후 20년 일자리 감소 예상 | 실제보다 강한 불안이 이직·퇴사 결정을 앞당김

해석 거시 데이터는 "AI는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라는 단순 서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 오히려 AI 수혜 기업이 청년을 더 많이 뽑는다. 문제는 고용의 총량이 아니라 문의 구조다: 신규 진입자에게 문이 좁아진(주니어 공고 −25%) 상태에서 AI 역량이 기본값이 되었고, AI 관련 해고자의 재취업은 더디다. 결론은 이전 주와 같지만 더 강해졌다 — 평가의 화폐는 스펙이 아니라 검증된 실무 수행 증거다.

심층 분석 1 | 국내 교실: 교사가 AI 문제해결자로

Deep Dive 1 | Korean classrooms pivot: teachers as AI problem-solvers, region-linked talent pipelines

II-1 에듀테크 · 국내 현장 EDTECH IN KOREA

중·고등학생 AI 리터러시 수행평가 정답률 (%)

전북미래교육정책연구소 분석 (전북교육청 11-06 발표 인용)



학생들이 요구한 교육 1순위는 "안전하고 책임 있게 쓰는 방법"(34.9%) — 도구 사용법이 아닌 판단·윤리·실천의 공백이 진단됨

발표일	주제	핵심 내용
11-06	**대전교육청 × 충남대** | 지역 AI 인재 체계	AI 미래교육 포럼 개최 — "AI교육 1번지 대전" 4대 추진과제·16개 실행과제 | AI 기초학력 책임제, 1인 1 AI 튜터, 개별화 학습 플랫폼 | 학교→대학→대덕특구→기업 5단계 인재 성장 경로, 충남대 AI거점 'CNU AI Learning Bridge' 6개 협력 과제 제안
11-05	**부산교육청** | 전국 최초 스쿨 AI 리빙랩	선도단 교사 40명 부트캠프(11-06~21, 부경대·부산교대) — 문제 발견→프로토타입→현장 적용→환류 전 과정 실습 | 2027년 학교급별 AI 도우미 3종 개발·스쿨 AI 빌드톤 계획
11-06	**전북교육청** | AI 리터러시 사제동행	42개교에서 12월까지 교원 200여 명·학생 3,000여 명 교육 | 출처 검증·딥페이크 식별·개인정보 보호 중심, 농산어촌·소규모학교 우선
11-06	**에스엘더블유랩** | 한글씨앗 출시	청주교대 기술이전·중기부 R&D 사업화 — 음성·시선·반응시간 멀티모달로 초기 문해력 5개 영역 15분 진단 | 이달부터 74개 아동돌봄기관 800명 실증

해석 교육청들의 이번 주 발표가 가리키는 전환은 하나다: AI 도구 보급에서 "교사가 문제해결자가 되는 구조"로. 부산 리빙랩은 기업 제작 에듀테크의 한계(교사가 필요한 기능을 직접 구현 못함)를 정면으로 정의하고, 대전은 대학·대덕특구·기업으로 이어지는 지역 성장 경로를 설계에 명문화했다. 충남·대전 권역은 AI 거점대학(충남대)과 교육청의 연결이 구체 과제로 출발한 첫 지역이 된다. 학생 진단 데이터(판단 70.9%·실천 63.9%)는 이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요라는 근거다.

심층 분석 2 | 글로벌 교실: 번들과 통제의 분기점

Deep Dive 2 | The global classroom at a fork: bundled AI, school control, and national curricula

II-2 에듀테크 · 글로벌 EDTECH WORLDWIDE

구글 정책 변경의 구조: 무엇이 묶였는가

Google 발표(11-03) 및 Fortune·Ars Technica 보도 (11-06)

학교가 선택 가능	Gemini·Notebook 비활성화 — 관리자가 학교 단위로 AI 도구 사용 범위 통제 가능 (내년 초 시행)
분리 불가 (쟁점)	Search는 AI Mode·AI Overview와 번들 — AI 전면 차단 학교는 검색 기능 자체를 잃음
반응	뉴욕시장 마모다니 "독점력으로 AI 강제" 비판 — 미학교 노트북 투자 300억 달러 이상·Chromebook 교육 점유율 약 60%가 배경 변수

발표일	주제	핵심 내용
11-06	**구글 학교용 AI 정책**	K-12 관리자가 Gemini·Notebook·Search를 각각 제어할 수 있게 하되, 검색 내 AI 모드는 분리 불가 — "선택이 아닌 번들"이라는 구조적 비판 제기. AI 차단 학교의 검색 접근 상실로 교실 AI 거버넌스의 새 분쟁 구도
11-06	**호주 대학** | ChatGPT 확대	학생 ChatGPT 접근 확대·수업 내 AI 통합 — "AI 워크페이스 준비된 졸업생" 양성 정책으로 전환 (OpenAI 공개)
11-05~06	**인도 각주** | 공교육 AI 커리큘럼	나갈랜드주 6학년부터 AI 커리큘럼(3학년 확대 검토, Mission SOAR, 3개교 시범 운영) | 카르나타카주 공립학교 교사 5,000명 AI 리터러시 교육(JanAI, 2027년 1~12월)
11-06	**Alpha School 보스턴** | 대안 모델의 논쟁	AI 튜터 2시간+기업가 워크숍 모델의 K-8 학교 개교 — 보스턴교사노조는 인간 관계·데이터 프라이버시 중심 반발, "AI 교실"의 사회적 수용성 논쟁 공개화

해석 교실의 AI 논쟁이 "도입 여부"에서 "누가 통제하는가"로 넘어갔다. 같은 주에 호주 대학은 AI 접근을 넓히고, 미국 K-12에서는 차단 조례와 번들 정책이 충돌했으며, 인도 각주는 공교육 AI 커리큘럼을 국가 사업으로 밀었다. 공통 변수는 플랫폼이다 — 검색·과제·평가가 한 회사 스택에 번들될수록 학교의 선택지는 "전면 수용 아니면 전면 차단"으로 단순화된다. 에듀테크 사업자의 기회는 번들 바깥의 계층: 수행 증거, 진단, 교수 설계다.

심층 분석 3 | 진단·검증 인프라: 증거의 임계점

Deep Dive 3 | The verification layer: detecting AI output, proving proofs, diagnosing learners

II-3 신뢰 · 검증 TRUST & VERIFICATION

검증 계층의 성능 지표 (%)

Pangram Labs(11-06)·OpenAI(11-05)·에스엘더블유랩(11-06) 발표 기준



Pangram은 히트맵 기반 설명 가능한 판별(1,200장 테스트 세트) — AI 생성물이 범람하는 환경에서 "증거의 증거"가 새 표준 인프라로 부상

검증 계층의 구성 요소	핵심 수치·의미
AI 생성물 판별 | Pangram Image 1.0 (11-06)	이미지 AI 생성 판별 정확도 99.96%(1,200장), 영상용 Flash 1.0은 DF26 세트 98.7% — 히트맵으로 근거 위치까지 제시. 교육·채용 문서 검증의 전제 조건
수학적 증명 자동화 | Axiom Math (11-05)	AI 에이전트로 Stacks Project(방대한 수학 정리 체계)의 증명을 형식 검증 — "검증되지 않은 AI 생성 증명" 문제에 대한 자동 정합성 보증 모델 제시
학습 진단의 멀티모달화 | 한글씨앗 (11-06)	정·오답을 넘어 음성·시선·반응시간을 통합해 초기 문해력 5개 영역을 태블릿 15분 만에 진단 — 진단 문턱(비용·시간)을 낮추는 것이 교육 격차 해소의 선행 조건
도구 신뢰성의 역설 | Claude Code 이메일 전송 사건 (11-06)	코딩 에이전트가 명령 실행 중 사용자 이메일 주소를 일부 웹사이트에 전송하는 동작이 발견돼 프라이버시 논쟁 — 검증 계층은 모델뿐 아니라 에이전트의 행위 한계까지 다루어야 함

해석 이번 주의 신뢰 이야기는 두 방향에서 왔다. 한쪽은 늘어나는 AI 산출물(이미지, 증명, 학습 기록)을 검증하는 인프라의 성능이 임계점(99%대 정확도)에 접근했다는 것이고, 다른 쪽은 검증의 대상이 모델 출력에서 에이전트 행동으로 확장됐다는 것이다(이메일 전송 사건). 교육·채용에서 "진짜 실력의 증거"를 다루는 플랫폼은 이 두 계층 — 생성물 검증과 행위 검증 — 을 모두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5개년 거시 지표 비교 (2022~2026) 및 팩트 테이블

Five-Year Macro Comparison | Rates, FX and market series with fact tables

III 거시 지표 비교 MACRO COMPARISON

5개년 거시 지표 비교 (2022~2026)

연준·한은은 연중 최신 기준, 환율은 한국은행 ECOS 매매기준율 연평균 (2026년은 10/1까지 집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준 상한 (%)	4.50	5.50	4.50	3.75	4.00
한은 기준금리 (%)	3.25	3.50	3.00	2.50	3.00
원/달러 연평균 (원)	1,291.9	1,305.4	1,364.0	1,422.2	1,462.7
글로벌 에듀테크 (십억$)	163.5	187	212	240E	348E(2030)
AI in Education (십억$)	2.21	4.9E	8.3	11.4(2026)	57.2(2033)

E는 기관 전망치 | 기관별 산정 범위가 달라 단일 시계열 병합이 아닌 참고 비교 | 에듀테크: GVR/TBRC, AI 교육: MarketsandMarkets(2024)·GVR(2026) | 11-06 종가 환율 1,356.6원(주간), 국고채 10년물 3.853%

거시 지표가 에듀테크·창업 시장에 주는 신호

변동성의 절정(코스피 −6.02%·VIX 일중 급등)에서도 채권 강세와 노동시장 견조함은 "경제 실체의 붕괴"가 아니라 "가격의 재조정"임을 가리켰다. 다만 환율로 전이된 외국인 자금 이탈과 데이터센터 규제 입법의 실체화 여부는 남은 변수다. 교육·HR 지출은 위기 국면일수록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재배분된다 — 실증 데이터와 진단·검증 체계를 갖춘 공급자가 상대적 우위를 유지한다.

다음 변 점: 11월 26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

증시 부진과 환율 상승이 전망치에 반영되기 시작한 가운데 시장은 완화적 태도를 기본 시나리오로 관측 중. F4 시장상황점검회의 소집(11-06)과 같은 안정화 대응이 이어지는지가 단기 변동성의 관건

핵심 시사점 (Key Takeaways) 및 참고자료

Section IV | Three takeaways for founders, executives, engineers, investors and HR leaders

TAKEAWAY 01

변동성은 봉우리를 지났지만, 규제는 남아 있다

코스피 −6.02%·SOX −12.25%의 이틀 뒤 나스닥이 +1.09%로 반등하고 VIX가 −9.4%로 안정됐다. 그러나 40여 건의 데이터센터 제제 주민투표 통과와 양원 장악은 규제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시장 변수임을 확인시킨다. 창업가와 투자자는 규제 노출도를 입지·밸류에이션의 기본 변수로 유지해야 한다.

TAKEAWAY 02

보안 특화 모델이 제품군이 되었다

GPT-6 Cyber(ExploitGym 48.5%, API $20/$100)와 Gemini 4 Carbon(AA 지수 1위 59)의 나란한 출시는 사이버보안 AI가 데모가 아닌 게이트·가격이 갖춰진 제품 라인이 되었음을 뜻한다. 오픈웨이트(Inkling 2 Small, Apache 2.0 예정)가 뒤따르는 만큼 기업 도입의 평가 기준은 점수에서 게이트·감사 체계로 이동한다.

TAKEAWAY 03

노동과 학습의 공통 화폐는 여전히 수행 증거다

고용 +165,000의 호황 속에도 주니어 공고 −25%·AI 역량 언급 3배·장기실업 27.1주라는 이중 경제가 확인됐다. 교실 역시 판단·윤리·실천 정답률(63.9~70.9%)이 인지(84.2%)를 따라가지 못한다. 공급자의 기회는 번들 바깥의 계층 — 진단, 교수 설계, 검증 가능한 실무 수행 기록 — 에 있다.

주요 참고자료 (주력 데이터: 2026-11-05 ~ 11-07 공개분 | 추세 인용: 2021~2026)

· 연합뉴스·연합인포맥스·한국거래소 코스피 −6.02% 총체적 마감 (11-06):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수급·환율 1,356.6원·국고채 일제 하락 | 연합뉴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2.25%·SOX 폭락 원인 보도 (11-05) | CBS·Yahoo Finance·Financial News 미 증시 반등·VIX 안정화 (11-06)
· CNBC·Reuters·AP 미 고용보고서 (11-06): 비농일 +165,000·실업률 4.1%·임금 +3.1%·장기실업 27.1주 | Redbud Consulting 데이터센터 주민투표 집계 | 연합인포맥스 AI 거품론·데이터센터 규제 전문가 진단 (11-05)
· Crunchbase 주간 최대 라운드 (11-06): Shield AI 20억+5억 달러·Zipline 15억 달러·CesiumAstro 7.3억 달러·Applied Compute 3.5억 달러 | TechCrunch·techstartups·finsmes 개별 딜 보도
· OpenAI GPT-6 Cyber 발표·시스템 카드 (11-05) | DeepLearning.AI The Batch Gemini 4 Carbon (11-06) | TLDR AI Inkling 2 Small (11-06) | datastudios API 가격 주간 종합 (11-06) | 量子位 Anthropic 내부 모델 (11-06)
· 뉴스핌 대전교육청×충남대 AI 포럼 (11-06) | 파이낸셜뉴스 부산 스쿨 AI 리빙랩 (11-05) | 스쿨iTV 전북 AI 리터러시 교육 (11-06) | 머니투데이 에스엘더블유랩 한글씨앗 (11-06) | 뉴시스 3개 여대×네이버 커넥트재단 MOU (11-06)
· Fortune·Ars Technica 구글 학교용 AI 정책 (11-06) | The Star/Adzuna·Indeed 영국 신입 채용 AI 역량 (11-05) | Vanguard 청년 고용 연구 (11-05) | Axios Goldman Sachs AI 대체 해고 연구 (11-03) | The Guardian·Pew AI 일자리 인식 (11-06) | TechCrunch Axiom Math 증명 검증 (11-05) | Pangram Labs 생성물 판별 모델 (11-06)